

다시 푸는 경서

虛雲和尚의 참선요지 ⑤

到了這箇時候 祖師門不壞已
도르저개시후 조사문부득이
探取以毒攻毒의辦法 教學人參公案
채취이독공독적방법 교학인참공안
或是否看頭 甚至要敲定一箇話頭
혹시간화두 심지어요고정 일개사화두
教爾敲得緊緊 利那不要放鬆
교어교득간간 할나불요방송
如老鐵穿釘相似 敲定一處 不通不止
여노서천관재상사 교정일처 불통부지
目的在以一念 抵制萬念
목적재이일념 저제만념
這實在是不不得已의辦法
這實在是不不得已의辦法
저실재시부득이적방법

간격반적시수 간천의적시수
看走路的是誰 看睡覺的是誰
간주로적시수 간수각적시수
都是一箇樣子
도시일개양자

실은 모두 다 같은 것이며 혼한 보통
것이여 별로 특별한 것도 아니다.
결론적으로 요점을 말하면 경을 읽는
것은 누구며, 주문을 외우는 것은 누구
며 부처를 경배하는 것은 누구이며,
밥 먹는, نوم은 누구며 옷을 꿰는 것은
누구며, 길을 가는 놈은 누구며 잡자고
캐는 놈은 누구냐 하는 것이
모두 같은 모양의 화두인 것이다.

誰字下的答案 就是心
수자하적답안 취시심
話從心起 心是話之頭
화종심기 심시화지두
念從心起 心是念之頭
념종심기 심시념지두
萬法皆從心起 心是萬法之頭
만법개종심생 심시만법지두
其真話頭 即是念頭 念之前頭就是心
기실화두 즉시념두 념지전두취시심

누구나 하는 물음의 답은 마음이다.
말은 마음을 따라서 일어나니 마음은

이러한 시절을 맞아 조사님들이 부득
이하게 독으로써 독을 쳐부수는 법을
취하여 학인들에게 공안을 참구하라고
가르쳤다.

혹은 화두를 보이라고 가르치기도 했
는데 심지어는 하나의 죽은 화두를 파
고 들게 하니 평평하게 할나도 흐트러
짐이 없이 싹고 또 싹도록 가르쳤다.

마치 놈은 쥐가 나무 상자를 잡아 구
멍을 내듯이 정해진 화두 하나만 파고들
되 통하지 않으면 그치지 않게 하였다.

(이렇게 한) 목적은 한성각으로써 만
념을 억제함에 있으니 이는 실로 부득
이한 방법이였다.

“무엇이 경을 읽고 잠자고 길을 가다가
말 생각등 만법 앞머리에 마음이 있다”

如惡毒在身 非用利刀割治 難以生效
여악독재신 비개도료치 난이생효
古人的公案多得 後來專看話頭
고인적공안다득후래전간화두
有的看死屍的是誰
有的看死屍的是誰
유적간타사적시수
有的看父母未生前 如何是我本來面目
유적간부모미생전 여하시어본래면목
晚近講方多用 看念佛是誰 這一話頭
만근제방다용 간념불시수 저일화두

이 말의 머리아다.
생각도 마음을 따라서 일어나니 마음
은 이 생각의 머리아다.
만법은 다 마음을 따라 생기니 마음
이 이 만법의 머리아다.
실은 화두란 곧 염두이며 생각의 앞
머리에 마음이 있다.

直言之 一念未生以前 就是話頭
직언지 일념미생이전 취시화두
由此 爾我知道 看話頭 就是觀心
유차 이어지도 간화두 취시관심
父母未生前 的本來面目 就是心
부모미생이전적본래면목 취시심
看父母未生前的本來面目 就是觀心
간부모미생전적본래면목 취시관심
性即是心 反觀則自性 即是反觀自心
성즉시심 반문자성 즉시반관자심

골이 골대로 말하면 한 생각 생기기 이
전이 화두이다. 그러므로 너와 내가 도를
일러면 화두를 보아야 하는데 이는 곧 관
심인 것이다. 부모미생전의 본래면목이란
바로 마음이다. 부모미생전의 본래면목을
본다함은 바로 마음을 보는 것이다.
성품은 곧 마음이다. 들음을 돌이켜
자성을 듣는다는 것은 곧 관하는 것을
돌이켜 제 마음을 관하는 것이다.
龍眼

이 는 악독이 물에 있을때 칼로써서 치
료하지 않으면 살기 어려운 것과 같다.
옛 사람의 공안은 많기도하나 후에 와
서는 오로지 화두로 보라고만 가르쳤다.
흔히 시체를 끌고 다니는 것은 누구
인지 보라. 부모가 태어나기 전에 어떤
것이 나의 본래 면목인지를 보라는 것
들이다. 최근에 와서는 제방에서 흔히
쓰기를 염려는 누가 하는지를 보라는
것 하나뿐이다.

其實都是一樣 都很平常 無異奇特
기실도시일양 도흔경상 병무기특
如果說 看念佛是誰
여과이요실 간념경적시수
看持咒是誰 看拜佛的是誰
간지주적시수 간배불적시수
看穿衣的是誰 看穿衣的是誰

“암, 중풍, 성인병, 부인병, 신경통, 관절염,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 등 온갖 질병에 대해
기적적인 치료효과를 나타내는 불교전통 쑥뜸비방”

“뜨겁지 않고 흥터가 생기지 않는”
* 바라밀 쑥뜸기 구입시 불가사의한 영험력을 나타내는 금강경 신탁
다라니 10매씩을 같이 드립니다.
* 전국 사, 군 단위로 바라밀 쑥뜸기를 보급할 분을 찾습니다.

신비의 바라밀 쑥뜸기 보급 안내

- 현재 가족중에서 병으로 고통받는 분이 계십니까?
• 원인을 알수없는 만성질환으로 고통받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 주위에 오랜기간 병을 낳고자 별방법을 다써도 치유
되지 않아 오랜기간 고통스러워하시는 분은 안계십
니까?
• 이런분은 주저하지 마시고 무조건 바라밀쑥뜸을 먼저
써보시기를 권합니다.
• 그동안 갖가지 질병으로부터 고통받은 많은 사람들이
이 바라밀쑥뜸요법으로 완치되었고, 현대의학도 포
기한 수백명의 환자들이 바라밀쑥뜸으로 다시 살아난 실증
예가 많기 때문입니다.



- 1) 신약중의 신약인 강화 약쑥만을 엄선하여 쑥뜸의 재료
로 사용하고 한방에 영묘한 쑥의 약효를 몸속으로 많이
침투시키기 위해 쑥기둥을 약재 만들어 드도록
되어있다. (재래식 쑥뜸의 50배 이상되는 크기)
2) 한약재와 곡물과 경면주사등으로 만든 쑥뜸 링발침과
이것을 받칠수 있는 또하나의 발침대 2종류를 사용하
여, 뜨거움을 본인이 조절함으로써 흥터가 생기지 않
고 살갗에 직접뜨는 쑥뜸보다 절명치로 효과가 더욱
크게 작용하도록 하였다.
3) 쑥뜸은 쑥을 태울때 생기는 쑥연기의 성분과 열자극
으로 병이 치유되기 때문에 바라밀쑥뜸에서는 쑥연기를 최
대한 많이 피부표피(땀구멍)속으로 흡수시켜 오장육부와 14경
락을 잘 통하게 하고 거기에 고통이 없는 열자극까지 주어,
염증을 억제하고 노폐물을 산화시켜 병을 치료시키는 원리이다.

바라밀 쑥뜸 건강요법·치료의 사례들
(바라밀 쑥뜸은 이런 병들을 고침니다)

중풍, 허리디스크, 요통, 좌골신경통, 관절염, 안면마비, 만성두
통, 빈혈, 수족냉증, 만성위장병, 위염, 폐암, 위암, 대장암, 간
염, 간암, 간경화, 황달, 당뇨병, 비만증, 방광염, 전립선염, 자궁
이상, 생리불순, 방증, 질염, 요도염, 치질, 불임증, 심장, 저고
혈압, 폐렴, 기관지염, 폐결핵, 기관지 천식, 편도선염, 후두염,
축농증, 전신피로, 갱년기장애, 기미, 주근깨, 여드름, 배근살,
피부미용, 시력저하, 알레르기성비염, 술·담배 많이 드시는 분,
정력감퇴, 각종 성인병 예방 등

쑥뜸기 내용

- 1) 바라밀 쑥뜸을 뜰 수 있는 15
가지 도구세트와(강화약쑥 약
2개입분 포함)
2) 쑥뜸 도구 일체 반영구적
3) 쑥뜸기 한세트로 전가족이 사용
4) 노부모님의 효도 선물로는 제
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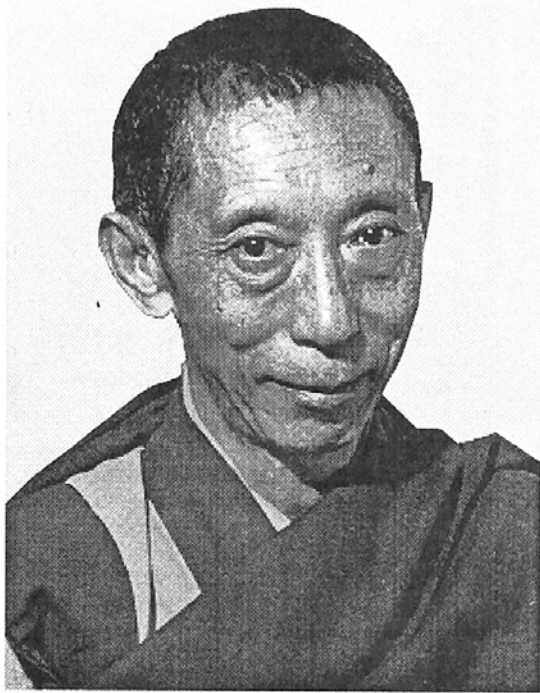
“이제 시술이 간편하고 즉효성이 두드러진 바라밀쑥뜸기
로 쉽게 자신의 병을 완치시켜 보십시오.”

구입문의처 상담 불교 바라밀 건강 연구회
본회: 부산광역시 연제구 저지3동 581번지
(한신상가5층5호)
• 대한불교조계종 부산교구(한신상가 5호)
• 부산 불교 해외발원 본부회
• 본회 (051)884-3740
본회: 경기도 용인시 보현면 능원리 30-1
(농림부발원) 상리관공회
• 본회 (033)334-9490, 39-1906
안/인 (0342)705-3060
서울강남지회 (02)597-7581
서울강북지회 (02)747-7033
부산지회 (051)516-2213(직접상담)
대구지회 (053)323-2598
대전지회 (042)222-4936
광주지회 (062)228-8544
제주지회 (064)222-3324
경주시민복지회 (033)291-8549
경남민주노동회 (055)73-0039
경남안산시지회 (055)23-9016
경남통산지회 (055)23-9016
경남통산지회 (052)74-7536
대전지회 (053)62-0076
대전광역시지회 (043)446-3023
대전광역시지회 (053)873-0532
경주지회 (053)772-3255
경주지회 (031)645-2117
거창지회: 0598-42-8534 국악사

여름특집

“부처님 말씀 행복의 열쇠”

계취 켈생 기앗소 (英 대승불교센터 원장)



래 ‘공’이 담고 있는 깊은 의미로 인해
아무리 쉬운 설명이라 할지라도 손쉽게
이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물집은 그것이 가진 형상을 통해 인간
의 마음에 와 닿습니다. 책이란걸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책을 볼 때, 책과 우리
의 마음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게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우리의 내
면에, 그리고 책은 우리의 외면에 각각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마음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책은 본래부터
존재해 있었습니니다.

그러나 사실상 책은 원래 없는 것입니
다. 왜냐하면 대상을 인식하는 마음으로
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은 없
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마음과는 분
리된 책을 찾는다면, 분명히 마음에는 어떤
책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본래부터 존재하지 않은 책이 바로 책의
본성이며 궁극적인 진리입니다. 비록 현
실에 있어서 책이 본래부터의 존재와 아
무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책을 보았을

· 기앗소는 1931년 티베트에서 태어
나, ‘태뱃대사원’에서 19년간 트리
장린포체로부터 사사 받았습니니다. 그후
‘히말라야사원’에서 20년동안 수행
에 전념했다. 1977년에 이르러 영국
을 방문한 기앗소는 ‘미주서트 대승
불교센터’에 머물며 지금까지 서방
에 불법을 전하고 있다.

보고 듣고 마음에 상 만드는 미혹에서 집착생겨

“자비는 불성을 일깨워주고
지혜는 장애물로부터 불성 해방”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불교를 가르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좋은 서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실상은
올바른 서원을 통해 일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 줍니다. 만약 우리가 항상 올
바른 심상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존경
과 사랑을 받고 자비심을 타인에게 베풀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고통으로
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매우 실천적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불행하고 기괴적인 가르
침만을 배울 뿐 불교와 일상의 상호관
계를 설정하지 못합니다. 앞서 지적했듯
이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은 우리의 일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물질
적 기술적 발전이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우리 모두
알고 있는 바입니다.
대각(大覺)한 이의 가르침인 불교의 주
요 핵심은 ‘지혜’와 ‘자비’입니다. 자비
는 우리의 불성을 일깨워주고, 지혜는 장
애물로부터 우리의 불성을 해방시키는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와 같
은 범부(凡夫)는 이 말을 듣고선 이해하

기 힘듭니다. 그러나 이런 가르침은 우리
일상의 평화와 행복에 매우 중요한 역할
을 해줍니다.
불성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몸·말·
생각이 현혹된 허상이란 것을 먼저 알아
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종류의 마음
이 있습니다. 이를 크게 구분하면 일시적
으로 존재하는 마음과 영속적으로 존재하
는 마음으로 양분할 수 있습니다. 이 마
음은 우리가 일상을 통해 순간순간 선택
합니다.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은 이
를 통해 마음에 상(想)을 만듭니다. 왜냐
하면 세상의 물질은 인간의 감각기관을
통해 지각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지각
된 마음은 마치 구름처럼 갑자기 나타났
다 사라집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개념에 충실한 따른 감각적인
마음과 보다 섬세하고 미묘하며 통찰력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감각적인 마음은
쉽게 알 수 있지만, 반면 통찰력 있는 마
음은 섬세하고 미묘함에 가려 쉽게 찾을
수 없습니다.
미묘하지만 통찰력 있는 마음은 근본적
인 의식 혹은 명확하고 밝은 마음으로 알
려져 있으며 바로 영리한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윤회가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끊
이지 않고 지속되어 왔습니니다. 그러나 인
간은 통찰력 있는 마음을 오직 죽음에 임
하여 지각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부처님은 ‘공’에 대해 매우 폭넓은 가
르침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 가르침에 기
초하여, 나는 지금부터 매우 간단한 예를
통해 ‘공’을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나 본

때 우리의 무지는 본래부터의 존재를 의
심하지 않고 이것이 책을 인식하는 마음
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주저 없이 생각
합니다.

이와 같이 잘못된 개념 때문에 우리는
집착을 가지게 되고 ‘내 책’이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집착의 마음은 무지입니다.
또한 집착은 모든 고통의 근본입니다. 이
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나
타나는 모든 대상물의 본성을 우리가 보
지 못하면, 반면 통찰력 있는 마음은 그
들의 궁극적 인 성질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몸은 어디에 있습니
까? 이것도 마찬가지로입니다. 결코 몸의
각 부분이 각각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니다.
눈에 비친 현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나와 내 주변의 것에서 보
여지는 것이 현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모든 현
상이 단지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공’하
습니다. 알아야 합니다. 미혹된 대상물은
결코 우리의 마음과 분리되어 있지 않습
니다. 미혹이 바로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란 것을 알아야 합니다.

’96 新 금강 영험 부적 호신불시계
관세음보살님 원력으로 성불하십시오
놀라운 신통력! 부적교한 첨단산제품
1. 소원 성취 부적
바라밀 소원성취 부적
이 부적은 몸에 지니고 다니면 소원을 이루
합니다.
2. 칠성 부적
후면엔 칠성 부적
이 칠성부처 불상이면
무병, 장수, 부귀영华的
부적입니다.
3. 삼재 소멸 부적
삼재소멸부처 추가제작하여
산적귀신사냥은 일체가
완전 대귀의 유제 지니면
삼재 일일이 사라집니다.
금강 부적시계의 장점
• 사원번창 • 무병장수
• 운전자무사고 • 합스원성취
• 삼재소멸 • 심신안정
• 일체재난구제
• 영험의 신비체험
남·여 1세트
특별현금가: W138,000
할부시 계약금: W18,000
매월 30,000원 x 5회
(신용카드 구입시 분할 우대)
138,000원
남·여한쌍
구입문의: 금강 정사 불교연합회 (02)252-4468(代)
서울·수도권은 즉시 배달해 드리며 지방에 계신분자님은
먼저 물품을 받으시고 결제하시면 됩니다.